

사회복지사여,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자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힘있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토론회 개최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는 5월 2일 인천광역시 예술문화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힘있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정체성, 현실 그리고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윤구 박사의 주제발표와 일선사회복지사, 중간 사회복지사, 기관장 사회복지사, 공무원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가 본 사회복지사, 시민이 본 사회복지사 등의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윤구 박사는 복지사회의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의 사상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사회복지의 현주소에 대해 "교육·보건·노동·문화·주택·노후케어 등을 감안하면 복지국가의 대열에서도 앞서지 못하고 복지사회로 가야 할 길이 너무도 멀고 험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이윤구 박사는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현주소가 그리 밝고 탄탄하지 못한 만큼 사회복지 전문분야의 일꾼들의 책임이 더 막중하다"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사안들


을 예리하게 찾아내고 몸부림으로 변혁을 꾀하며 사회변화에 앞장 설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네트워크 형성 및 임파워먼트 강화가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홍희석 신명요양원 사회복지사는 힘있는 사회복지실천을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로서 확고한 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 축적 ▲업무지침서 개발과 정확한 업무지침, 상시적이고 지지적인 수퍼비전, 공식적인 직원회의 등을 통한 임파워먼트 형성 ▲사회복지사협회의 권위 회복과 이를 통한 사회복지실천현장 실무자 네트워크 형성 등의 중요성을 설명하였다.

또 이은열 만수종합사회복지관 부장은 힘있는 사회복지사를 위해서는 중간관리자를 위한 전문교육의 시행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사회복지 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으며 임성규 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현실을 예로 들며 현장의 단결된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토론에 이어서는 자원봉사자가 본 사회복지사, 시민이 본 사회복지사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정희 가정봉사과견센터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권리와 인권 문제, 제도적 장치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들의 힘있는 실천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 구현을 위한 노력,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는 노력 등을 위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 인사말을 하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초대홍 회장